‘보물’ 선운사 세 지장보살님, 첫 ‘서울 나들이’

불교중앙박물관 ‘선운사’展 관람포인트 3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관장 서봉 스님, 이하 박물관)이 지난해 화재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교구본사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禪)에 들고 구름에 눕다(이하 특별전)’로 돌아왔다.

박물관은 4월 21일 특별전 개막식을 열고 전시의 시작을 알렸다. 전시는 7월 31일까지 계속된다.

POINT 1 지장신앙의 정수

이번 전시의 백미는 조계종 제24교구본사 선운사(주지 경우 스님)에 면면이 내려져 온 ‘지장신앙의 정수’를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 지장신앙의 중심에 있는 선운사에는 △선운사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좌상 △도솔암 내원궁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지장전 석조지장보살좌상이 봉안돼 있다. 이들 지장보살상들은 모두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돼 있다.

이들 지장보살좌상들은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조성됐으며 독존으로 봉안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 불교조각사적으로 독보적인 가치를 지닌다.

특히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은 지장신앙의 영험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전해 더욱 주목된다. 1936년 일본인 2명이 조선인 도굴범과 함께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을 훔쳤고, 이를 거액을 받고 일본에 팔아넘겼다.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을 구매해 소장하게 된 일본인은 이후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자신이 소장한 금동지장보살좌상과 똑같이 생긴 지장보살이 나타나 엄히 꾸짖은 것이다.

“나는 본래 전라도 고창 도솔산에 있었다. 하루속히 나를 그곳으로 보내달라.”

놀라 잠에서 깬 소장자는 처음에는 큰 의미를 두지 않았으나, 매일 같은 꿈을 반복해서 꾸고 가세마저 기울자 불상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하지만 소장자가 바뀌었어도 지장보살의 질책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소장자도 매일 같은 꿈을 꿨고, 가정의 우환이 끊이지 않았다. 그 역시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다른 이에게 넘겼다.

세 번째 소장자 역시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고, 앞선 상황을 알게 되자 고민 끝에 고창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그는 경찰에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도솔산 선운사로 이운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선운사 스님들과 경찰들은 1938년 11월 도일(渡日)해 금동지장보살좌상을 다시 도솔산 선운사로 모셔오게 됐다. 어리석은 중생의 헛된 욕망에 대한 준엄한 질책을 보인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의 일화는 우리 문화유산 환수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POINT 2 국보 ‘내소사 동종’

지난 2023년 12월 국가지정문화유산 국보로 승격된 부안 내소사 동종 실물을 만나볼 수 있다는 점도 이번 전시의 관람포인트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고려 후기 동종 가운데 가장 큰 종으로, 통일신라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고려의 특징이 잘 드러내는 대표작이자 기준작이다.

종을 만든 내력이 적힌 주종기(鑄鍾記)를 통해 장인 한중서가 700근의 무게로 1222년(고려 고종 9) 제작했음을 알 수 있다. 본래 청림사에 봉안됐다가 1850년(철종 1) 내소사로 옮겨졌는데, 이 내용을 적은 이안기(移安記)도 몸체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부안 내소사 동종은 공중을 비행하는 듯 연출된 역동적인 용뉴, 종의 어깨 부분을 올림연꽃 문양으로 입체적으로 장식하고 몸체에 천인상(天人像) 대신 삼존상을 부조로 배치한 점, 섬세한 꽃잎으로 표현된 4개의 당좌(撞座), 균형 잡힌 비례와 아름다운 곡률을 가진 몸체 등 뛰어난 장식성과 조형성을 지녔다.

동종을 조성한 장인 한중서에 대해서도 주목할 만하다. 한중서는 13세기 전반부터 중엽까지 활동한 장인으로 민간 기술자인 사장(私匠)에서 시작해 대외적으로 실력을 인정받아 관청 소속의 관장(官匠)이 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다. 그는 고령사 청동북(1213년), 복천사 청동북(1238년), 신룡사명 소종(1238년), 옥천사 청동북(1252년) 등을 남겼다.

POINT 3 최대 규모 성보 전시

이번 전시에서는 국보 1건, 보물 11건을 포함한 총 81건 157점의 선운사 본·말사가 수호해 온 유구한 성보(聖寶)들이 소개되며 이는 박물관 전시 중 최대 규모다. 이를 위해 박물관은 선운사 본·말사부터 송광사, 용문사, 불암사와 동국대 박물관과 도서관, 호림박물관, 아모레퍼시픽, 불교천태박물관, 운허기념박물관까지 여러 사찰과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문화유산을 이운해 선보인다.

또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이라는 7년 전란의 상처를 딛고 불교문화유산을 가장 화려하고 역동적으로 꽃피워낸 ‘선운사의 저력’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시기에 조성된 ‘선운사 소조비로자나삼불좌상’(보물)의 복장유물과 불화와 불상 등은 당시 불교예술의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증명한다.

선운사의 암자인 도솔암과 참당암을 비롯해 말사인 내소사·동국사·개암사·문수사·덕림사·구암사 등 각기 다른 역사와 예술성을 간직한 명찰들의 성보들이 전시되는 점도 의미가 크다.

특히 단독 공간에 마련된 전북유형문화유산 ‘부안 개암사 목조제화갈라보살좌상’은 높이가 164cm에 이르는 대형 보살좌상으로 1656년 당시 불모 수연 스님의 유파인 영철·밀영 스님이 조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형 불상임에도 화려한 보관이 활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17세기 불교조각의 걸작으로 평가된다.

또한 참당암 응진전에 봉안된 소조오백나한상들은 깨달은 수행자를 넘어 중생과 친근하게 소통하는 존재로서 해학적인 표정을 지닌 것이 특징이다. 이들 존상들은 모두 다른 표정과 자세를 지녔으며 인간적인 면모가 두드러진다.

개막식에서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치사를 통해 “전북불교의 중심 도량인 선운사는 창건주 검단 선사의 자비법맥이 도도히 흐르는 수행처”라며 “이번 전시는 ‘선운사 삼지장보살상’을 한자리에 모신 희유한 보리도량”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이어 “삼지장보살상의 장엄한 자취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위로와 평온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인사말에서 “각기 다른 도량에서 중생의 고통을 굽어살피시던 삼지장보살님을 불교중앙박물관 한 공간에서 장엄하게 모신 것은 지극히 소중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고 의미를 짚으며 “특별전의 이해를 돕고 친견하시는 불자님들과 시민들의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올 6월 학술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도솔산 선운사는 백제 위덕왕 24년 검단 선사께서 창건하신 이래,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행과 신앙의 전통을 이어온 도량”이라며 “전시를 통해 선운사의 성보와 그 안에 담긴 깊은 신심이 널리 전해져, 많은 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마음의 등불을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 특별전 ‘도솔산 선운사—선(禪)에 들고 구름에 눕다’에 전시되는 선운사 삼지장보살상. 왼쪽부터 선운사 지장보궁 금동지장보살좌상,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삼지장보살좌상이 한곳에서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월 21일 열린 특별전 개막식에서 내외빈들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사진=박지운 수습기자

7월 31일까지 특별전 진행
화재 이후 첫 전시회 의미
6월 학술세미나 개최 예정

日불법 반출 후 환지본처된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 등
‘삼지장보살상’ 처음 한자리

성보 157점 전시 ‘최대 규모’
고려 ‘내소사 동종’ 눈길 끌어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2026 승려연수교육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포교
- 대승기신론의 시각으로 본 일심
- 변화하는 시대의 소통방안
- 생활속의 마음 공부 : 치유와 성장

*지금 바로 신청해 주세요!
소중한 인연에 감사합니다.

▶ 연수 개요

- 주 제 : ‘현대 포교 실천: 공감 그리고 공생’
- 일 정 : 2026년 9월 7일(월) ~ 9일(수) [2박 3일]
- 장 소 :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 인 증 : 조계종 교육원 인증 연수 (30점)
- 모집인원 : 선착순 40명
- 교 육 비 : 20만원
- 입 금 :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과학원
- 웹사이트 : http://www.hansi.org
- 문 의 : 한마음과학원 사무국 031-470-3200/3201 (일,월요일 휴무)

(재)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 하시면
바로 신청 접수 가능합니다.